

수행은 나를 찾는 일관된 행진이다.
이 행진을 막는 장애가 있다면 바로 자신
임을 알라.

-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표 스님



제834호 2011년 5월 4일 수요일 (음력 4월 2일 · 불기 2555년 · 주간)

사찰수익사업 어렵다

특화사업 벌이려해도 곳곳 난제... 시설 투자 등 절실

전국 사찰들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활성화 위한 종단차원의 지원 방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은 수년전부터 신도들의 보시금 의존도 완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부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멀리하는 불교계 특성상 이런 활동을 지원할 전문 컨설팅과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형편이다. 결국 사찰들은 긴 세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들은 또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설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 생산량을 늘려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들은 고가의 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공업 방식이나 소규모 제조업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화 선원사는 연(蓮)을 재배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성공사례로 꼽히는 선원사도 사업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선원사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해 초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업 초기에 시장의 특성, 주요 타겟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장기적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선원사는 공정 자동화를 위한 설비 도입도 고민 중이나 한 대에 2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기계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절곡 삼명사는 '하나되기보호작업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양초를 판매하는 부대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라는 선입견과 낮은 생산량 때문에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초 성형설비는 질 좋은 양초 생산을 위해 5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사용하는 설비를 4년째 사용해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기계값 부담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14대만으로 양초를 생산하고 있다. 삼명사와 '하나되기 보호작업시설'은 판매량 증진을 위해서는 자동화 설비 20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해진 하나되기보호작업시설 시설장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다 보니 비장애인에 비해 4~5배 정도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비용 부담 때문에 자동화 설비 도입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되기보호작업시설은 복지 시설인 만큼 순수익이 증가하면 복지 발전을 위한 수익의 사회적 회향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생산량 때문에 아직 연 200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찰들이 부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종단의 구체적 지원방안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종단도 불과 몇 개월 전 시작한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된 것이 없다. 개별 사찰 지원 방안은 향후 종단 차원에서 종책이 수립이 되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박기범 기자



천진불의 합창. 동자승 단기 출가식이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12명의 어린이가 석발 옆의 했다. 동자승은 11일 까지 단기출가 생활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체험을 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한다. 캄보디아 어머니를 둔 여전 스님(가마름, 여, 5세)이 석발을 마치고 의젓하게 합창 반배를 하고 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스마트폰서도 연등다세요

연등달기 무료 어플 서비스 시작



스모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연등보기 기능에는 등 아이콘에 게시자 이름과 사찰, 사찰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개별 사찰의 홍보효과도 노렸다.

최대종 대표는 "성탄절 축하카드를 전하듯 부처님오신날 등 달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자신 외에 이웃을 위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 부처님이 오신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등달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나와 이웃을 위한 소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 부처님 오신 뜻을 함께 기쁘고 축하할 수 있다.

DN Networks(대표 최대종)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달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공개했다. 어플리케이션은 전국 사찰에 디지털 연등을 달고 소원을 작성하는 '새 연등 달기'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연등보기' 서비스

연등달기 프로그램은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내 3000여 사찰 및 위치정보가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 사찰에 연등을 달 수 있다. 소원의 소원을 주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주소록에 있는 친구에게 소원을 공개할 수 있다.

DN Networks는 사찰 홈페이지, 중무행정 프로그램, 디지털 영상 서비스 등 교계 전산 전문가 그룹이다. (070)7273-1018

이상연 기자

정치인 특별 대우 금지

조계종이 180일 동안 금지했던 정부·여당 인사의 사찰출입을 사실상 완전 허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정부·여당 인사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석과 관련한 중무지침을 전국 사찰에 하달했다.

총무원은 중무지침에서 "근자에 전통문화에 대한 정부·여당

의 움직임이 작게나마 보이고 있어 종단 차원에서 제시한 대외관계 지침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부터 적잖이 제기됐다"며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은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되, 세속적 지위나 명예 또는 차별과 차이를 드러내는 행동은 자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8일, MBC서 무소유 캠페인

조계종은 MBC와 공동으로 5월 8일 서울 조계사 및 우정국로에서 '무소유, 비움과 나눔' 캠페인을 펼친다.

행사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광주 마곡사, 대구 동화사, 고창 선운사에서 동시에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대중에게 무소유 정신 등을 소개

개해 생활 속에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가수 빅뱅과 아이유 등 연예인, 기업인 등의 기증물품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매, 비움 실천 서약서 작성, 비움 권유 메시지 전하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조동섭 기자

■ 다음주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제835호, 5월 11일자)는 연등회 보도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제위의 양해를 구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근 나인파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원출가아시,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834호 CONTENTS

- 현장속으로 울트라 108마라톤대회 5
- 사찰음식 대중앞에 성금 '발우 공양' 2·3호점 개점 6
- 통도사영산전 보물 지정 7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품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3-6777 www.nl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www.chanduk.com